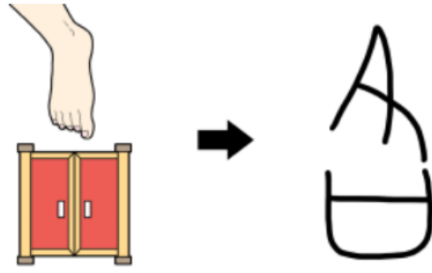


6(2)  
-  
1

회의문자 ①



各

각각 각

各자는 '각각'이나 '따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各자는 攴(뒤져서 올 치)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口자는 '입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발을 그린 攴자를 결합한 各자는 사람의 입구에 다다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各자를 보면 攴자가 입구 쪽을 향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各자는 '도착하다'나 '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여럿이 따로 도착한다 하여 '각각'이나 '따로', '제각기'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2

상형문자 ①



角

뿔 각

角자는 '뿔'이나 '모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角자는 짐승의 뿔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角자를 보면 뾰족한 짐승의 뿔과 주름이 잘 묘사되어 있었다. 고대부터 짐승의 뿔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角자에 '술잔'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고대에는 소의 뿔을 술잔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뿔은 짐승의 머리에서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어서 角자에는 '모나다'나 '각지다'라는 뜻이 생겼고 또 동물들이 뿔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겨루다'나 '경쟁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角자와 결합하는 글자들은 대부분이 '뿔의 용도'나 '뿔의 동작'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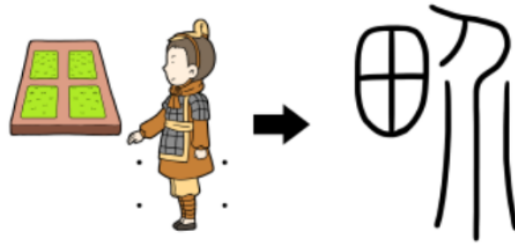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3

회의문자 ①



界

지경/  
경계할  
계

界자는 '지경'이나 '경계', '한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界자는 田(밭 전)자와 介(끼일 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介자는 갑옷을 조여 입는다는 의미에서 '끼이다'나 '사이에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界자는 이렇게 '사이에 끼다'라는 뜻을 가진 介자에 田자를 결합한 것으로 밭과 밭 사이의 '경계'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界자는 소유주가 다른 토지 사이의 경계선을 '끼다'라는 뜻의 介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界자는 토지나 영토의 구분 선인 '경계'나 '한계'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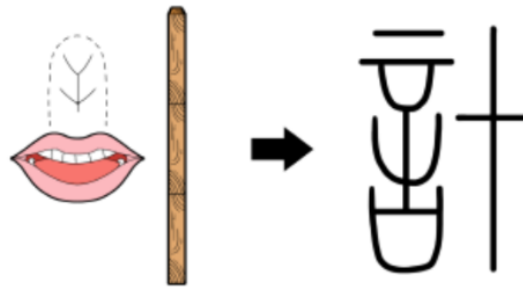
소전

界

해서

6(2)  
-  
4

회의문자 ①



計

셈(셈)  
계

計자는 '세다'나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計자는 言(말씀 언)자와 十(열 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十자는 긴 막대기를 그린 것으로 숫자 10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숫자 10을 뜻하는 十자에 言자가 결합한 計자는 1에서 10까지 말(言)로 셈한다는 뜻이다. 쉬운 셈은 간단히 말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計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글자라 할 수 있다.

計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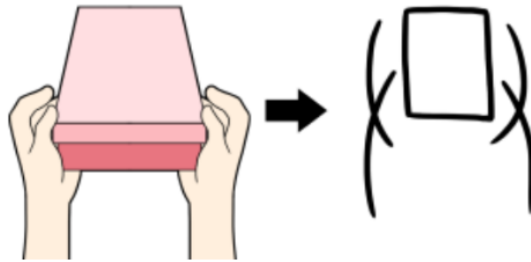
計

해서

6(2) - 5	<div>상형문자 ①</div> <div></div>								
<div>高</div> <div>높을 고</div>	<p>高자는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高자는 높게 지어진 누각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高자를 보면 위로는 지붕과 전망대가 그려져 있고 아래로는 출입구가 口(입 구)자로 표현되어있다. 이것은 성의 망루나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던 종각(鐘閣)을 그린 것이다. 高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높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높은 것에 비유해 '뛰어나다'나 '고상하다', '크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高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p>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6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div>公</div> <div>공평할 공</div>	<p>公자는 '공평하다'나 '공변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변되다'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자는 八(여덟 팔)자와 厶(사사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厶자는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사롭다'라는 뜻이 있지만, 갑골문에서는 八자와 口(입 구)자가 厶 결합한 형태였다. 사실 갑골문에 쓰인 口자는 '입'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사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公자는 사물을 정확히 나눈다는 뜻이었다. 소전에서는 口자가 厶자로 바뀌게 되면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나눈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p>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7

상형문자 ①



共

한가지/  
함께  
공

공자는 '함께'나 '다 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자의 갑골문을 보면 네모난 상자를 받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기 그릇을 공손히 들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제기 그릇을 공손히 들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공손하다'나 '정중하다', '함께'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다. 고대에는 공자와 供(이바지할 공)자가 혼용됐었다. 그러나 후대에서는 供자를 '이바지하다'나 '베풀다'로 공자는 '함께'나 '다 같이'라는 뜻으로 분리하였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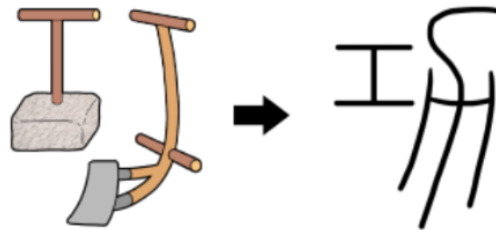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6(2)  
-  
8

회의문자 ①



功

공 공

功자는 '공로'나 '업적',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功자는 工(장인 공)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工자는 땅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 功자는 땅을 다지는 도구를 들고 힘을 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구는 땅을 단단하게 다져 성벽이나 독을 쌓던 도구였다. 전쟁이나 치수를 중시했던 시대에는 성과 독을 쌓는 일 모두 나랏일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그래서 功자는 나랏일에 힘써 준다는 의미에서 '공로'나 '업적', '사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6(2)

-

9

상형문자 ⓘ



果

실과(열매)과

果자는 ‘열매’나 ‘과실’, ‘결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果자는 木(나무 목)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果자의 갑골문을 보면 나뭇가지 위로 열매가 맺힌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이것이 간략하게 田자로 표현되었다. 과실수는 일 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가을에는 잘 익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果자는 비단 열매만을 뜻하지 않고 어떠한 일의 최종 ‘결과’나 ‘결실’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10

회의문자 ⓘ



科

과목/과정과

科자는 ‘과목’이나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科자는 禾(벼 화)자와 斗(말 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斗자는 곡식을 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으로 ‘구기’나 ‘용량의 단위’라는 뜻이 있다. 科자는 본래 벼의 ‘품종’이나 ‘등급’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까 벼의 품질을 가늠하기 위해 바가지로 쌀을 퍼내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가 科자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수확한 벼는 일정한 검사과정을 거쳐 등급이 매겨진다. 벼의 품질이나 품종을 검사해 수확한 벼의 등급을 분류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科자는 벼의 ‘품종’이나 ‘등급’을 뜻하다가 후에 ‘분류’나 ‘종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